제주시 이병철·서귀포시 김태문 당선

어제 민선 2기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속 부회장 입성…맞대결 승리 재선 성공

민선2기 제주시체육회장에 이병철(63) 제주시체육회 부회장이, 서귀포시체육회장에는 김태문(61) 현 서귀포시체육회장이 당선됐다.

이병철 당선인은 22일 제주시 사라봉다목적체육관 1층에서 실시된 제19대 제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219표 중 92표를 얻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경쟁후보였던 최기창 후보는 82표, 양방규 후보는 43표, 오태권 후보는 2표였다. 제주시체육회 선거인은 244명이다.

김태문 당선인도 이날 서귀포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치러진 통합 민선 제2대 서귀포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61표 중 94표를 획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경쟁후보였던 한희섭 후보는 67표를 얻었다. 서귀포시체육회 선거인은 163명이었다.

이병철 당선인은 "지지해주고 성원해준 체육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체육회 부회장으로 체육계에 봉사를 시작한 만큼 이제부턴 회장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공직자 시절부터 시체육회 발전을 위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왔다. 시체육회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 체육인들에게 좋은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김태문 당선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선거기간 여러분께 약속한 현장의 바람과 목소리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체육인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잊지 않고 늘 가까이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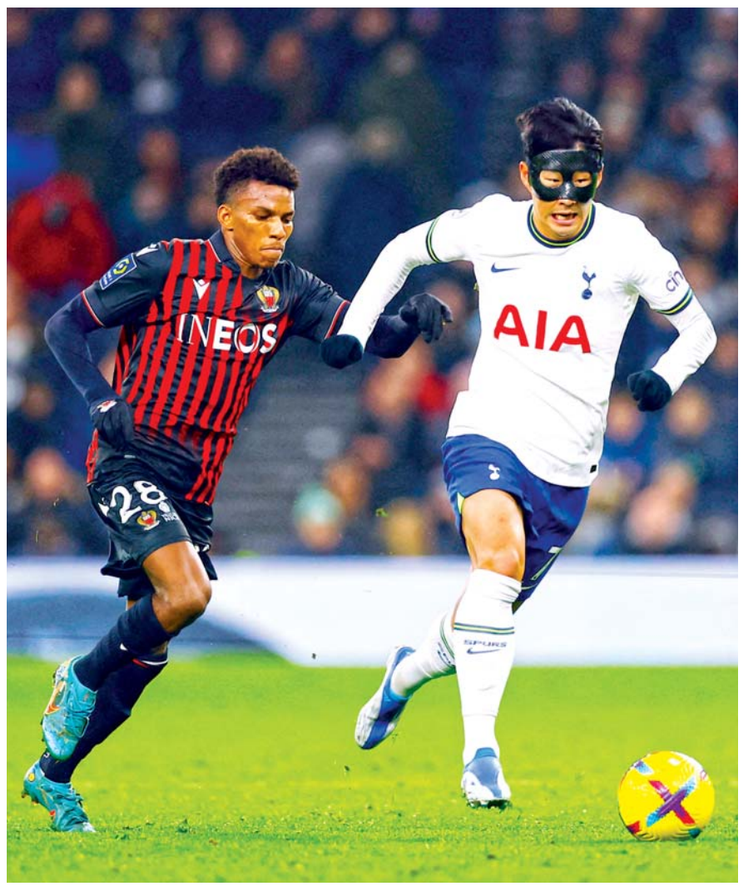
김태문

이병철 당선인의 임기는 내년 2월 22일부터, 김태문 당선인은 내년 2월 28일부터 4년간이다.

공직자(지방부이사관) 출신으로 (주)바투 대표이사이기도 한 이병철 당선인은 ▷체육인과 소통 강화 및 현실에 맞는 지원 ▷읍면동과 경기단체 업무지원비 확대 ▷체육시설 환경 개선과 동호회 조직 활성화 ▷스포츠 마케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 체육단체 통합 사무실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태문 당선인은 ▷107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 지원 ▷생활체육 한마당 축제 개최 및 동호회 육성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엘리트체육 육성 및 학교운동부 지원 시스템 마련 ▷종목협회 및 읍면동체육회 사무국장 업무수당 지원 ▷전국대회 창설 및 종목협회 주말리그 개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마스크맨' 손흥민 리그 출격 몸풀기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토트넘 홋스퍼와 OGC 니스(프랑스)의 친선 경기에서 손흥민이 니스의 이삼 부다위의 추격을 따돌리고 돌진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연합뉴스

제주Utd, 중앙수비수 연제운 영입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는 2023시즌 전력 강화를 위해 중앙수비수 연제운(28)을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025년까지 3년이다.

연제운은 2016년 성남에서 프로무대에 데뷔했다. 데뷔 첫 해 K리그1 16경기에 출전해 1득점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군입대 기간(2021년 3월 8일~2022년 9월 7일)을 제외하면 지난 시즌까지 성남에서 간판 수비수로 활약했다. 프로통산 160경기 출전 4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연제운은 남기일 감독과의 인연도 깊다. 남 감독은 2018년 성남의 1부리그 승격을 이끌 당시 연제운을 핵심 수비수로 기용했다. 당시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던 연제운은 뛰어난 경기력(29경기 출전 2골 1도움)은 물론 부주장 역할까지 도맡으며 그 기대에 부응했다.

185㎝, 78㎏의 다부진 체격을 보유한 연제운의 가세로 제주의 수비라인은 더욱 단단해질 전망이다.

제주서초 축구선수들과 한때를 보내고 있는 연제운(사진 맨 오른쪽).

빠른 스피드와 판단력을 앞세운 대인 방어와 수비라인 조율 능력이 뛰어나고, 프로 데뷔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됐을 정도로 정교한 킥과 패스를 활용한 후방 빌드업이 탁월하다.

빠른 공수 전환으로 경기를 장악하는 남기일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부합하는 수비자원이다. 남 감독과의 또 다시 환상의 호흡을 예고한 연제운은 "팀에 빠르게 녹아드는 게 목표다. 제주에서도 코칭스태프와 팬들에게 신뢰를 주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입단 소감을 밝혔다.

조상윤기자

이철호 자전거연맹 사무국장
한·일 교류 공로 감사패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은 이철호(사진) 연맹 사무국장이 제4회 한일 국가대항전 고교 사이클대회 기간(12월 17~18일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시) 한·일 사이클연맹간의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자전거연맹으로부터 공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대한자전거연맹 국제이사직을 겸하면서 한·일 사이클 교류에 헌신을 다했다. 특히 한·일 양국 간 국가대항 교류전을 성사시켰으며, 양국 간의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 사이클팀은 매년 2월 제주에서 전지훈련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 올스타 팬 투표 최다득표

남녀 통합 1위… 남자부 신영석 전체 2위
V리그 올스타전 내년 1월 29일 인천에서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최다 득표로 별들의 잔치에 나서게 된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도드람 2022~2023 V-리그' 올스타전에 나설 선수들을 확정, 22일 발표했다. 올스타전에 나설 선수는 온라인 팬 투표와 전문위원회 추천을 통해 남녀부 20명씩, 총 40명이 선발됐다.

온라인 팬 투표에서는 베테랑들이 가장 많은 표를 차지했다. 여자부 M-스타의 김연경(흥국생명)이 8만2297표를 획득하며 리그 복귀와 동시에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 뒤를 이어 남자부 M-스타의 신영석(한국전력)이 6만9006표로 전체 2위이자 남자부 최다 득표자가 됐다.

신영석은 20-21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3년 연속 남자부 최다 온라인 팬 투표 득표자이자 총 4번의 남자부 올스타 최다 득표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연경은 20-21시즌과 이번 22-23시즌 총 2번의 올스타 최다 득표자가 됐다.

특히 여자부 M-스타의 김해란(흥국생명)은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도 올스타에 선정되며 총 15번째 올스타로 남녀부 통합 역대 최다 올스타 선정 선수에 등극했다. 남자부 M-스타의 한선수(대한항공)도 12번째 올스타전에 참가하며 V-리그 대표 스타로서의 위상을 뽐냈다. 남자부 최다는 여오현(현대캐피탈)으로 13회이다.

이와 함께 이번 올스타전에 첫 출전하는 얼굴들이 눈길을 끈다. 팬 투표를 통해 선정된 남자부 M-스타의 이상욱(삼성화재)과 Z-스타의 허수봉(현대캐피탈), 김지한(우리카드), 김민재(대한항공), 이상현(우리카드), 김명관(현대캐피탈), 여자부 Z-스타의 박은서(페퍼저축은행), 김세인(한국도로공사), 김다인(현대건설), 최효서(KGC인삼공사)가 그 주인공이다.

한편 '도드람 2022~2023 V-리그' 올스타전은 내년 1월 2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조상윤기자